

통계로 본 작년 서울의 하루

2018 통계연보 발간...179명 출생·147쌍 결혼

물가 5년전보다 7.6% 상승...담배 77% 최대폭

학령인구 144만명...초교 교원 1인당 학생 14.7명



통계로 본 지난해 서울의 하루는 어땠을까?

12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8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79명이 태어나고 118명이 사망했다. 147쌍이 부부가 됐고 47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5549명의 인구가 이동을 하기도 했다. 시내이동은 2791명, 시외

전입은 1244명, 시외전출은 1514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12년에 비해 7.6% 올랐다. 주요품목별로는 담배(77.5%), 달걀(51.6%), 쇠고기(33.7%), 탄산음료(26.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탁세제(27.0%), 휘발유(22.8%), 도시가스(19.0%), 쌀

서울 독거노인, 처음으로 30만명 넘었다

서울시 평균연령 41.6세...총인구 1012만5000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8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시내 65세 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전년(2016년)보다 4.9% 증가했다. 이 중 30만4000명(22.3%)은 독거

노인이다.

독거노인 30만4000명 중 경제적 도움(기초생활수급권자+저소득층)이 필요한 노인은 약 1/4인 7만9000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6만명, 저소득 노인이 1만9000명이다.

(12.7%) 등은 하락했다.

서울시민의 1일 교통수단별 분담률(2016년 말 기준)은 지하철·철도 38.9%, 버스 26.1%, 승용차 24.3%, 택시 6.6% 순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노선 중 2호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1만8000대로 2016년 308만3000대보다 3만3249대(1.1%) 증가했다. 등록자동차 현황은 자가용이 290만5000대, 영업용은 19만9000대로 전년 대비 각각 1.0%, 1.5% 늘어났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9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업용 6.4%, 관용 0.4% 등의 순이었다.

학령인구는 2012년 175만명(내국인 전체 17.1%)에서 지난해 144만명(내국인 전체 14.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12년 50만200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약 7만4000명(14.7%)이 줄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은 2012년 16.9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2.2명 감소했다. 초등학교 수는 2012년 594개소에서 지난해 603개소로 9년전에 비해 9개소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12년 25.5명에서 지난해 23.0명으로 2.5명 줄어 들었다.

교통사고로 0.94명이 사망했고 전력 12만7000MWh, 유류 12만8000배럴, 도시가스 1213만5000㎥, 1인당 급수량 303l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에 범죄는 877건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0.94명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16.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하루에 92대가 증가했다. 165명의 서울시민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뉴스스

서울시교육청,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도입

수업·평가혁신 발표...고교 선택학점제·논술형 평가 내년 50% 이상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66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오는 2020년 중학교 1학년 대상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업평가·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유학년제는 학기 단위의 자유학기제의 확장적인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지식·경쟁 중심 교육이 아닌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의미한다.

입시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66개교가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2019년 237개교, 2020년 387개교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청과 연수를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 운영 형태별 지원 가이드를 개정·보급한다. 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안내자료를 보급해 인식확산에 나선 예정이다.

초등학생 대상 혁신방안으로는 3~6학년에게 해당하는 '우리가 꿈꾸는교실'을 내놨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안정맞춤)의 연장선상으로

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 교육에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에 참여하고 예술·문학·자연·시민감을 기르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공모를 거쳐 1500학급을 선발하고 한 학급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도입을 거쳐 2020년 2600학급, 2021년 4300학급, 2022년에는 5100학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교에서는 학생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핵심이다.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한 수업 커리큘럼이 아닌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주도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직업계 교육 위주의 특성고교를 제외한 모든 서울 고교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교마다 수업 수요가 다르고 소규모 수업을 개설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52개교를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학교로 운영하고 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도 46개교 지정한다. 온라인을 활용해 공동 교

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도 4개교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교육과정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학교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교육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협업 공간인 공동학습카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40개교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을 반영해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중심의 지필평가는 축소하고 현재 45% 이상인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비율을 내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교과에서 1과목 이상은 논술형 평가나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한다.

교사들이 학년을 시작하기 전 충분히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모든 초중교 교원 대상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중 개별교과가 3~5일간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 교직원들이 모여 신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

뉴스스

이산화질소 농도 상위 10곳중 9곳 서울

녹색연합, 전국 321곳 시민참여 모니터링...최악은 아차산사거리



가 97ppb로 가장 나빴다. 이산화질소는 일산화탄소와 함께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이다.

전국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상위 10곳 중 9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광진구 아차산사거리의 오염 정도가 가장 심했다.

12일 녹색연합이 지난달 6~7일 이틀간 서울 61개 지점 등 전국 321개 지점에서 시민들과 미세먼지 중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보면,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

상위지점 15곳은 모두 수도권 안이었다. 특히 서울 광진구 아차산사거리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138ppb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은평구 진관초등학교 교문 밖 농도(23ppb)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 서울 신사역 2번출구와 인천 문학경기장정문교차로가 128ppb, 서울 용두동 사거리가 123ppb, 서울 이수역 14번출구가 120ppb 등을 기록했다. 상위 15곳 중 13곳, 10곳 중 9곳이 서울에 집중됐다.

주요 자동차 등 석탄·석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특성상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많은 수도권외 도심지역에서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고 녹색연합은 전했다. 최저순위 농도로 확인된 지역들은 대부분 도시숲, 교외지역, 하천 주변 등이었다.

녹색연합은 "이산화질소의 농도 차이는 자동차에 기인한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에서는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고 했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